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17,098 천 km ²	G D P	18,504억달러 ('11)
인구	141,5 백만 명 ('11)	1 인 당 GDP	12,993 달러 ('11)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통화단위	Russian Ruble(RUB)
대외정책	미국의 일방독주 견제, 자국 역할 증대 방안 모색	환율(달러당)	29.38

-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적인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임.
- 1991년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로 BRICs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2009년 말 이후 더딘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불투명한 제도, 만연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 경제

□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 유지

- 2010년 러시아 경제는 유가상승,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가시화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4%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 2011년에는 실질임금 상승, 농산물 풍작, 2011년 12월 총선 및 2012년 3월 대선을 앞둔 경기부양책 확대 등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3%의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동향을 살펴보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1%를 기록했고, 2분기에는 3.5%로 성장이 둔화되었음. 하반기에는 통화(루블화)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및 소비 증가현상이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3분기 5.1%, 4분기 4.6%를 기록하며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 * 2011년 1인당 GDP가 12,993달러로 상승하여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지표상으로는 고소득국(HIC)으로 분류(세계은행 기준)됨.
- 2012년 1분기 러시아 경제는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실질 소득 및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2012년에도 4.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나, 유로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약세를 보일 경우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2011년 국내총투자/GDP 비율은 GDP 규모 증가로 인해 2010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 지속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질임금 상승 및 실업률 감소에 따른 내수 회복과 사회보장성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연중 8.4%를 기록했음.
- 2012년 1분기에는 루블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식료품 가격 안정 지속,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9%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연중 4.6%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소폭 흑자로 전환

- 러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 등으로 2009년 GDP 대비 5.9%, 2010년 4.0%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 2011년에는 재정수지가 우랄산 원유가격이 평균 105.7달러/배럴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GDP 대비 0.8% 규모의 소폭 흑자로 전환되었음.

* 우랄산 원유가격 추이(U\$/배럴, 연평균): 41.8('08) → 76.6('09) → 92.2('10) → 105.7('11)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8.5	5.3	-7.8	4.3	4.3
재정수지 / GDP	5.4	4.1	-5.9	-4.0	0.8
소비자물가상승률	9.0	14.0	11.7	6.9	8.4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형성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에너지 산업의존도(2011년 기준)는 총수출의 59%, GDP의 18%, 재정수입의 50%임.
- 2010년 이후 고유가로 에너지 수출 및 재정수입이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취약한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GDP 기준 세계 9위의 경제대국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1억 4천만 명에 달해 내수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2011년 기준 GDP규모가 1조 8,504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9위(2010년 11위 기록)의 경제대국임.
- 원유(2010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774억 배럴) 세계 7위, 생산량(연간 5.1억 톤) 세계 1위
- 천연가스(2010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44.8조 m³) 세계 1위, 생산량(연간 5,889억 m³) 세계 2위

다. 정책성과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정부는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생산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현대화는 5대 전략산업에 대한 중점육성과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전반의 기술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음.
 - * 5대 전략산업: 에너지효율화(신연료개발 등),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러시아 정부는 R&D에 종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모스크바 외곽의 스킨코보(Skolkovo) 지역에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2011년 착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3~7년 소요 예상).
 - 파격적인 세제혜택(향후 10년간 지대, 부가가치세, 수익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정부패 관행 및 복잡한 법규 등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조치를 지시했음.
 - 즉, 가즈프롬 등 17개 주요 국영기업에서 총 8명의 부총리,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이사직을 독립이사로 교체하고 민영화 일정을 확정하는 등 국영기업과 일반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부정부패 척결 관련 조치 및 기업의 사회보험부담률 인하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됨.

□ 러시아 정부, 대규모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계획 차질 예상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1년 6월 인프라부문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을 지배지분(50%+1주)보다 축소하는 민영화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음.
- 2011년 7월과 10월에 스베르뱅크(Sberbank), VTB(Vneshtorgbank), 로젤 크호즈뱅크(Rosselkhozbank) 등의 국영은행, 로스네프트(Rosneft), 루시드로(RusHydro), 소브콤플로트(Sovkomflot) 등 핵심 국영기업 등 11개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되, 정부지분 50%+1주는 유지하는 정부지분 매각(약 200억~300억 달러 규모 추산)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2012년 5월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석유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정부지분 매각에 제한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6월 발표된 새로운 국영기업 민영화 방안에는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 등 석유 및 자원 관련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 계획이 제외된 바 있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출 지속 증가

- 2011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 상품수출이 증가하면서(전년 대비 30.3%) 총수출증가율은 4.9%를 기록했으며, 2012년 1분기 상품수출도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12년에도 수출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는 점진적으로 확대

-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품인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의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인해 GDP 대비 2010년 4.7%, 2011년 5.3%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음.

- 2011년 고유가 지속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동기의 1,520억 달러에서 1,982억 달러로 확대된 데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988억 달러를 기록했음. 2012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상수지 규모가 GDP 대비 4.7%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러시아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본 유출이 지속되어 자본수지 적자가 2010년 260억 달러에서 2011년 762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의 10개월 분 이상 유지

- 2009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말 외환보유액 규모도 4,412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10개월 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도 경상수지 흑자와 FDI 유입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루블화 가치는 변동폭 확대

- 2009년 2월 달러당 35.8루블까지 하락했던 루블화 가치는 유가 상승 및 해외자본 유입에 힘입어 2010년 중 달러당 29.2~31.2루블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1년 상반기 루블화 강세 이후 하반기에는 약세로 전환되며 연중 달러당 27.3~32.2루블로 변동폭이 커졌고 연평균 달러당 환율은 29.4루블을 기록함.

□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2011년 총외채잔액은 4,882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과 GDP 규모가 증가하면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각각 79.6% 및 25.6%로 크게 개선되었음. 2012년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5,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총수출/GDP 추이: 121.3('09) → 102.1('10) → 79.6('11)
- 총외채잔액/GDP 추이: 37.6('09) → 32.3('10) → 25.6('11)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진적 완화 추세

- 2011년에는 수출증가세 지속으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6%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이보다 낮은 1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러시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이: 28.1('09) → 22.9('10) → 16.2('11)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77,768	103,530	48,605	71,080	98,834
경상수지/GDP	5.9	6.3	4.1	4.7	5.3
상 품 수 지	130,915	179,742	111,585	151,996	198,180
수 출	354,401	471,603	303,388	400,630	522,011
수 입	223,486	291,861	191,803	248,634	323,831
외 환 보 유 액	466,376	410,695	405,825	432,949	441,162
총 외 채 잔 액	471,000	480,541	462,976	479,914	488,214
총외채잔액/GDP	36.7	28.5	37.6	32.3	25.6
D . S . R .	36.1	26.3	28.1	22.9	16.2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12월 총선, 여당 과반의석 간신히 유지

- 2011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450석 중 238석을 차지하며 과반의석을 간신히 유지했으나 2007년 대비 77석이 줄었고, 반면에 공산당, 정의당 및 자유민주당은 모두 추가 의석 확보에 성공하며 세력을 확장했음.

□ 푸틴, 대통령 3선에 성공했으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잠재

- 2012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전 총리가 당선되었고 5월 대통령에 취임하여 향후 6년간(2012~18년) 재임할 예정이며, 취임 후 푸틴은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을 총리로 임명하여 정부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 부정선거 의혹으로 항의 시위 등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푸틴의 정권장악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푸틴의 대통령 3선 성공으로 국정을 장악했으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2000년 대통령 당선 후 총 20년 집권 가능)가 커지고 있음.
- 2011년 12월 총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되던 푸틴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는 2012년 6월 현재 잠잠해진 상태이나 정치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 안정으로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은 상태

- 2000년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9.4%(2009년 2월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6%대를 유지했고 2011년

1~4월에는 다시 7%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 6%대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9년 이후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금, 공공부문 급여 및 실업자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관련 부문 예산을 확대하여 경제문제로 인한 대규모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 국지적인 소규모 소요사태 발생

- 2008년 이후 2010년 3월 모스크바 지하철테러, 2011년 1월 모스크바 공항 테러, 2012년 5월 다케스탄 자살폭탄테러 등 사회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테러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리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북코카서스 지역의 경제여건 개선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무력화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악화 우려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등 부시 대통령 시절 냉각되었던 양국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음.
- EU와도 공공 관심사인 에너지안보, 과격주의 세력 척결 및 핵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란 원유수입 금지 및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등과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공동의 목적하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특히 아시아 지역까지 에너지 수출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 8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2012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 모색

- 구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를 중심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
- 2009년 가스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우크라이나와는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2010년 2월)에 따라 관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7월 발효된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5년 IMF 차관 조기상환

- 2005년 1월 IMF 대기성차관 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으며, 2005~06년 2년에 걸쳐 파리클럽채무 430억 달러도 전액 조기상환함에 따라 IMF 등으로부터 추가차관을 받을 가능성은 낮음.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1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36억 달러, 중장기 380억 달러이며, 이 중 단기 1,100만달러(0.3%) 및 중장기 4.7억 달러(1.2%)가 연체 중으로 중장기 연체금액 중 2.4억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이나, 인수승인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임.

2. 국제시장평가

□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 추세

- OECD는 2009년 10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한 후 2010년 1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도 이를 유지했으나 2011년 1월 개최된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 개선, 외국인투자유입 지속, 양호한 외채현황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해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했음.
-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S&P는 2009년 12월 신용등급전망을 기존의 부정적(BBB/Negative)에서 안정적(BBB/Stable)으로 조정했고, Moody's는 2008년 12월 전망을 긍정적(Baa1/Positive)에서 안정적(Baa1/Stable)로 조정한 후 2012년 5월 등급 및 전망을 유지(Baa1/Stable) 했음.
- Fitch는 2010년 1월 등급전망을 부정적(BBB/Negative)에서 안정적(BBB/Stable)으로 조정한 후 9월에 긍정적(BBB/Positive)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2012년 1월 러시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된 이유로 등급전망을 안정적(BBB/Stable)으로 하향조정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2. 6.)	C1 (2011. 11.)
OECD	3등급 (2012. 1.)	3등급 (2011. 1.)
S&P	BBB (2009. 12.)	BBB (2008. 12)
Moody's	Baa1 (2012. 05)	Baa1 (2008. 12)
Fitch	BBB (2012. 1)	BBB (2010. 9)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 주요협정

- 형사사법공조조약, 원자력협력협정(이상 '99), 에너지분야협력협정('00), 관광협정('01),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세 지속

- 러시아와 한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래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중 177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고 2011년 교역규모는 212억 달러(수출:103억 달러, 수입: 109억 달러)를 기록(우리나라는 대 러시아 무역수지 적자 지속)했음.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1위 수출상대국이자 13위 수입상대국임(2011년 기준).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 등 1차 산품임.

<표 4>

한·러시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4,194,066	7,759,836	10,304,880	자동차 및 부품 선박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수 입	5,788,759	9,899,456	10,852,171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감소세 시현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1년 12월 말 기준 19.4억 달러(435건)로, 2006~09년 연도별 투자금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10년 연간투자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했고 2011년 연간투자액은 크게 감소해 9,792만 달러에 그쳤음.

□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기대

-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9월과 11월 두차례의 정상회담 외에도 한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분야 발굴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음.
- 2011년에도 10월 한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와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남-북-러가스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음.

V. 종합 의견

- 러시아는 2009년 하반기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고소득국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재정수지도 2011년 흑자로 전환된 상태임.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러시아 거시경제현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수출이 총수출의 59%를 차지하는 등 유가의 향방에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12월 총선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지난 총선 대비 77석을 잃었으나 과반의석은 간신히 유지했음.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집권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음. 푸틴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악화되는 양상이나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있음.
-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했으며, OECD는 2011년 1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으나, S&P 등은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책임조사역 황상하(☎02-3779-5711)
E-mail : hsangha@koreaexim.go.kr